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관한 교사의 종교인식 및 전망¹⁾

황 옥 자
(동국대학교)

《 요 약 》

현행법상 공교육 체제하에서의 종교교육은 금하고 있으나 사립 유아교육 기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유아교육계의 현실은 종교교육에 있어 설립자 및 원장의 교육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립 유아교육기관은 종교를 설립 배경으로 창설 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있으며 이들은 설립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직, 간접의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계의 현실에 따라 본 연구는 종교계 유아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203명을 대상으로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관한 현황 파악과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전망에 관해 조사, 분석하여 이 분야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I. 서 론

한국은 다종교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삶의 공간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종교들이 평등하게 공존하고 있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공존 적응 해 가는 종교의 자

1)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 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유가 사실상 보장되고 있다.

그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느 특정 종교가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거나 국가를 표방하지는 못한다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강인철, 1997). 이러한 특성은 종교의 평등이라는 장점도 있으나 이에 비례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공중원, 1989). 이를테면 어느 특정 종파가 다른 종파보다 우세하기 위해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내지는 종교적 이기주의가 종교간의 이해나 상호평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송병순, 1999).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종종 드러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공교육 체제하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학교교육은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정 종교의 교리나 세계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교육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은 현실적으로 금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 유아교육 기관은 아직 공교육 제도권으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가 특정 종교를 설립배경으로 창설되고 있으며 이들은 설립 이념에 따라 특정 종교교육을 자연스럽게 실시하고 있다(윤승용, 1997).

현재 우리 나라 국·공립 유치원에 비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의 수가 1997년 4월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4,611개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종교계 사립 유치원은 963개원으로, 기독교 유치원 515개, 불교유치원 169개, 원불교 유치원 140개, 천주교 유치원 124개, 유교 2개, 기타종교 13개 유치원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이 교회, 사찰, 성당 내에 위치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이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성격상 불분명하거나 표면상 규정짓기에도 애매한 점이 있어 파악한다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교육부나 기타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이 사실상 더욱 적극적이고 특정 교리 중심의 종파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기관의 종교교육에 관한 현황파악

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종교를 설립배경으로 창설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에 관한 현황파악과 이들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관한 인식 및 효율성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유아 종교교육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종교별 유아교육기관 교사에 따른 설립이념 인식 및 종교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2. 종교별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로서의 직무 만족도는 어떠한가?
3. 종교별 유아교육기관 교사에 따른 종교교육 매체 활용정도는 어떠한가?
4. 종교별 유아교육기관 교사에 따른 유아기 종교교육의 효율성 및 전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종교와 교육

근자에 이르러 종교와 교육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특정 종교 교리로서가 아니라 인간 삶의 현상으로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본질이 미성숙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을 성숙하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때, 종교도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초 세속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그 본질적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결국 교육과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도덕적 차원의 선(善)이라는 점에 일치한다(황옥자, 1994).

종교라는 말은 원래 불교용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종(宗)은 궁극적인 진리를 뜻하고, 교(敎)는 그 진리를 사람들의 수준에 맞도록 설득력 있게 해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유래되었다(박선영, 1982). 가르침이란 지식이 있거나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선배가 후배에게 행하는 교육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종교에서의 가르침도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에게 더불어 깨닫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교육적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종교에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로 본다. 따라서 종교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의식을 확대하고 이 신앙의 윤리적 표현을 통해서 선과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하고자 한다.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선은 바로 절대적 상징에 대한 이상적 추구이며(황옥자, 1994), 인간의 인격적인 성숙이다(Coe, 1992).

불교의 자비심,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 등의 신조와 가치는 이들 종교가 현실의 삶 즉 인간 생활에서 실현시키고자 내세우는 선의 구현된 모습이다.

교육은 미성숙자의 인격을 성숙시킴과 더불어 그들의 삶을 보다 가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준다. 말하자면 교육은 근본적으로 현세적인 인간의 삶 즉 욕망과 필요를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성립된다는 것이다(오인택, 1997).

이와 같이 종교와 교육은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미성숙한 인격에 불만을 품고 보다 바람직한 이상적 인간 상태로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더욱이 교육에서 이룩하려 하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영원하고 무한한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궁극적 인간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필경 종교적 차원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종교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일단 부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므로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긍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교육과는 그 출발점이 다르지만, 종교가 일단 부정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를 배격하는 것을 말하며 세속 그 자체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궁극적 가치를 이 세속에서 구현하려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종교와 교육은 모두 그 이상을 이곳의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현상적인 삶의 가치는 존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종교와 교육은 그 출발점이나 차원을 달리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추구하는 가치나 성격을 같이하는 공동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비로소 '종교교육'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된다.

2. 유아기의 종교교육과 그 의미

유아기의 종교교육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종교교육에 관한 정의를 살펴본다면, 교육학에서 말하는 종교교육은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절대적 신념에 의하여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용 시키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가치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선의 가치를 의미한다.

한편 미국의 종교교육학자 웨스트 호프(John Westerhoff III, 1976)는 “종교교육이란 신앙공동체내에서 사람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며, 그들을 기독교적 삶의 양식으로 계발시키는 계획적·조직적·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웨스트 호프의 견해에서 보는 종교적 삶의 양식이란 특정종교에 바탕을 둔 교리와 삶의 양식을 강조하는 종파교육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학에서 종교교육을 정의한 의미와 차이를 보이지만 종교교육이나 특정종교의 교육이나 모두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가치, 선을 지향하는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종교교육과 종파교육은 다르다.

종파교육이란 “어떤 특정의 종교나 종파의 교리를 알게 하고 그 교리가 제시하는 인생관이나 세계관 속에서 살도록 교화하며 또 그 특정의 종교나 종교의식을 학습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종교교육의 개념은 “인간을 현실의 상대적이고 참나적인 효용성이나 실익만 추구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정조(情操)를 함양하여 진, 선, 미의 총체론적 승화인 성(聖)의 차원에서의 인격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박선영, 1982).

종파교육이 어느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조하고 그 종교가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아를 교화하는 행위라면,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도록 인도하는 행위에 초점을 두는 교육적 행위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수용되는 종교교육의 성격은 일반적인 종교교육 이라기 보다는 특정종교의 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종교적 상징체를 믿고 따르는 종교행위 및 삶의 양식을 형성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종교교육과 종파교육의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전영배, 1990)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유아기의 종교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교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이며, 필요하다면 그 종교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해 가느냐라는 점이다.

일찍이 계몽기의 대표적인 교육사상가들은 종교교육의 필요성이나 가치 자체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즉 인간의 품위와 가치는 인간의 윤리적 노력에 의해 규정되며 그 윤리는 인간의 종교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종교교육을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보았다(Cox Edwin, 1989).

그러나 종교교육에서 표방하는 윤리적인 가치나 종교행위 등은 20세기에 들어와 학교제도권 안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찬반의 양론이 팽배하게 되면서 주춤거렸다. 오히려 미국의 윌리엄 헤리스(William Harris)는 공교육기관은 종교와 완전히 분리된 세속적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김용표, 1997, 재인용).

이러한 입장은 존 설리(John Sealey)가 “교육의 궁극적 배경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선입견이나 교조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정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Sealey, 1985). 교육의 목적은 명백하게 교화와 다른 차원에 있으며 학교교육은 공공의 성격을 지니므로 특정 종교계층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옹호하는 교육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김용표, 1997). 학교의 종교교육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도전이요,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 듀이(John Dewey, 1940)도 학교와 같은 제도 안에서의 종교교육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 대신 듀이는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방법론 제시에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듀이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종교적 감정과 사상을 배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황옥자, 1994), 경험적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제 3의 종교교육 이론을 제안하였다(박선영, 1978). 존 듀이에 의하면 종교적 경험이란 인간 사회 생활에서 이루어진 이상상 이며, 인간 행동의 이상적 목표를 향한 과정으로 보르

로써 종교의 일반화, 생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종교교육 내지는 종파교육에 관한 찬반론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종교교육을 통한 학교교육의 긍정적인 가치를 외면할 수는 없기에 종교교육의 필요성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발달 특성상 미성숙한 유아 시기는 종교 심리적으로 거의 종교성의 맹아(박선영, 1997)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경험한 흔적은 무의식 속에 기록되어져서 성인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관련된 유아기의 모든 경험이 후일 종교성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유아기 경험이 지니는 심리적 지속성에서 볼 때 종교적인 문제는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이다.

이처럼 유아의 종교심은 주변의 환경적 교류나 경험을 통해 인상 지워지고 내면화하게 되는데(Fowler, 1981), 그 중에서도 부모는 가장 최초로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종교적인 상징체가 된다. 말하자면 부모를 통한 이미지는 후일 부처나 예수와 같은 종교적 교조로 이어짐은 물론 부모상으로부터 작성되고 구조화 된 종교심의 발달은 부모의 종교적 원리나 행동 자세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유아에게 점차 구체화 되어간다(Murphy, 1956).

다음으로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형식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종교적인 자극을 들 수 있다. 설립배경이나 이념을 특정 종교에 두고 있는 교육기관은 그 분위기에서부터 유아기의 종교심을 자극하게 되며 원장이나 교사의 종교적인 말이나 행동(예컨대 손목에 단주나 십자가 목걸이 등)에서 유아는 무의식적, 무비판적으로 종교를 익히고 종교심을 형성해 간다(이석림, 1997). 그것은 유아가 철학적 사변이나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감각기관의 자극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발달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자극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나 행동들이다. 행복하고 만족한 교사의 모습은 신앙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에도 크게 영향받는다.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교사가 직무에 만족할 때 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적극적이 되며, 교육적 기능도 활성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원정,

1982; 이명주, 1984; 안영혜, 1988; 김명자, 1991; 유정혜, 1996; 배영희, 1998). 다시 말해서 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인적, 물적, 종교적인 만족을 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교사 역할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오늘날 종교는 사회로부터 종교가 해야 할 사회적 임무와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생명윤리가 무너져 가는 이때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적 순화기능을 종교적 역할과 기능에서 기대하고 갈구한다. 종교는 이러한 역할기대에 부응하여 삶에 바른 가치와 생활윤리 및 도덕성 회복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깨닫게 하고 지켜나가도록 교도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그 교육대상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적 효과도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유아교육기관은 종교교육의 첫 대상자로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문부성의 훈련을 통해 각급 학교에다 종교적 정조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김세곤, 1997)함으로써 사실상 사립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역시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불교를 통한 종교교육이 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윤세원, 1997), 미국은 이러한 종교교육문제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아기 종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종교의 주입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삶에 대한 겸허한 태도와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사는 사회적 인간성을 함양하는 등 실천적인 과제이며, 방법론적 문제라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유아교사들의 종교교육에 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소속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설립자나 원장이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설

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선별하여 이곳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 203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선정 지역은 서울, 경기도 지역과 경상남북도(대구, 경주, 포항, 울산, 부산)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 표1 >과 같다.

< 표1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교사 연령	25세이하	119(58.6)	교사 학력	전문대졸	122(60.1)
	26-29세	52(25.6)		대졸	75(36.9)
	30세이상	32(15.8)		대학원이상	6(3.0)
교사 종교	기독교	41(20.2)	유아교육 기관설립 배경종교	기독교	40(19.7)
	불교	84(41.4)		불교	98(48.3)
	천주교	63(31.0)		천주교	65(32.0)
	기타	15(7.4)			
교사 종교 경력	9년 이하	89(43.8)	교사 직위	교사	171(84.2)
	10년 이상	99(48.8)		원감	8(4.0)
	무응답	15(7.4)		원장	24(11.8)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을 비롯하여 4개의 연구문제에 관련한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이명주(1984), 광정태(1991), 이석림(1997), 배영희(1998) 등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알맞게 제작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념 인식과 종교교육 현황에 관한 것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택형 응답형식을 취함으로써 빈도, 백분율, χ^2 검증의 통계처리가 적용되었다.

둘째 요인은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것으

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요인은 종교교육에 관련한 교사의 교수 매체 활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10문항과 넷째 요인인 유아기 종교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교사인식 및 전망을 위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3개 요인의 응답형식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화 함으로써 평균, 표준편차, 일원변량 분석 그리고 Duncan 검증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도구 내용에 따른 타당도는 유아교육전공자 3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유아교사 5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약간의 문항들은 보다 구체적인 문장으로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총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 87이었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 목적에 알맞게 제작된 질문지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교사 5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문제 상황에 대한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단 몇 개의 문항내용은 교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1999년 4월-5월중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의 명단을 파악하고, 경상남북도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은 인터넷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분류하여 명단을 파악하였다.

이때 교회, 사찰, 성당 내에 위치한 부속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종교 분류가 순조로웠으나 개인이 특정 종교를 설립 배경으로 창설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종교 교육 파악은 원장이나 교사와 직접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종교 분류를 하였다.

질문지는 총 300부를 제작하여, 1999년 6월 7일 - 18일까지 각 지역의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으로 배부되었고, 이중 24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내용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한 20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통계처리되었다.

4. 자료 분석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AS-PC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4개의 하위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의 문항내용은 빈도, 백분율,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3개요인의 문항내용은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과 Duncan 검증 방법이 이용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종교별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념 인식 및 종교교육 현황

연구문제 1을 통계 처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2>에서 <표5>까지와 같다.

<표2>는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배경인 종교와 교사의 종교가 일치한지, 그리고 각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종교로 가진 교사들 95% 이상이 자신이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종교와 일치하였다. 여기에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언급하지만 편의상 기독교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높은 종교 일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교사의 종교는 곧 그 유아교육기관의 종교를 거의 대표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다음은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념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로 기독교는 73.17%, 불교는 44.05%,천주교는 42.86%가 종교전도를 위해 설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조기 유아교육에서의 반응은 천주교(44.44%)가 타종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와 천주교간에 특히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기독교는 종교전도를 우선하는데 비해 천주교는 조기 유아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어 설립이념에서부터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다. 반면 지역 봉사나 신도의 요구 등은 매우 낮다.

<표2> 유아교육기관의 종교와 교사 종교일치도 및 설립이념 분석빈도(%)

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χ^2
교사종교	불일치	1(2.44)	2(2.38)	1(1.59)	7(46.67)	135.16 ***
	일치	39(95.12)	81(96.43)	61(96.83)	0(0)	
	개종	1(2.44)	1(1.19)	1(1.59)	2(13.33)	
	기타	0(0)	0(0)	0(0)	6(40.0)	
설립이념	조기유아교육	8(19.51)	26(30.95)	28(44.44)	7(46.67)	19.28 *
	종교전도 및 포교	30(73.17)	37(44.05)	27(42.86)	5(33.33)	
	신도의 요구	1(2.44)	4(4.76)	1(1.59)	0(0)	
	지역봉사	2(4.88)	17(20.24)	7(11.11)	3(20.0)	
계		41	84	63	15	

* P<.05 , *** P<.001

<표3>은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종교교육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계획안에 반영 시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 먼저 종교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에는 기독교 교사가 56.10%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인식한다 에서는 천주교 73.02%, 불교가 60.71% 순이었다. 이로써 기독교 교사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분명함을 나타냈다. 이는 P<.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다.

다음으로 종교교육을 실제 교육계획안에 반영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충분히 반영한다에 기독교 34.15%, 천주교 33.33%, 불교가 26.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교가 15.48%로 가장 많았고 이는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나 천주교 교사에 비하여 불교 교사들의 설립 목적에 따른 종교교육의 실행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3>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교육에 관한 인식 및 반영빈도(%)

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χ^2
종교인식의식	인식 못함	2(4.88)	4(4.76)	1(1.59)	3(20.0)	41.40 ***
	약간인식	1(2.44)	8(9.52)	1(1.59)	3(20.0)	
	대체로 인식	15(36.59)	51(60.71)	46(73.02)	9(60.0)	
	분명히 인식	23(56.10)	21(25.0)	15(23.81)	0(0)	
교육반영안도에	전혀 못함	1(2.44)	13(15.48)	1(1.59)	3(20.0)	31.43 **
	주제에 따라	9(21.95)	24(28.57)	16(25.40)	5(33.33)	
	약간 반영	17(41.46)	25(29.76)	25(39.68)	6(40.0)	
	충분히 반영	14(34.15)	22(26.19)	21(33.33)	1(6.67)	
계		41	84	63	15	

** P<.01 , *** P<.001

종교와 연계된 교육활동은 주로 언제 실시하며,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4>와 같다.

먼저 교육활동 실시에 관해서는 종교 명절이나 종교행사 일에 실시 한다면 천주교가 41.27%, 불교가 40.48% 기독교 26.83% 순으로 나타났다. 무종교를 포함한 기타에서도 유아교육기관의 종교 명절에 종교교육을 실시한다고 53.33%로 높은 응답을 보여 주었다. 반면 기독교교사는 일일교육안에 종교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는 응답이 34.15%로 다른 종교계 유치원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서 기독교 교사의 종교교육이 매우 적극적임을 시사해 주었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다음으로 종교교육 활동 횟수는 주1회 실시에 기독교는 65.85%, 천주교는 50.79%로 응답한 반면 불교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종교교육을 실시한다고 44.04%가 응답하므로써 좋은 대조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표4> 종교와 연계된 교육활동시간 및 활동 횟수 빈도(%)

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χ^2
종교명절	1126.83	3440.48	2641.27	853.33	26.74 *
종교의식	1024.39	1214.29	34.76	16.67	
일일 교육안	1434.15	2125.0	1726.98	640.0	
필요시 언제나	614.63	1619.05	1219.05	00	
부모교육	00	11.19	57.94	00	
주1회	2765.85	2833.33	3250.	640.0	30.46 **
한달1회	00	55.95	711.11	00	
한 학기 1-2회	12.44	1416.67	57.94	426.67	
필요시 언제나	1331.71	3744.04	1930.16	533.33	
계	41	84	63	15	

* $P<.05$,

** $P<.01$

종교와 연계된 교육활동 비율과 종교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를 질문한 응답 결과는 <표5>에서와 같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두 전체 교육활동 중 10-30%비율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50%까지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34.15%나 되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의 종교교육이 타종교보다 가장 열성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 본 결과 <표5>에서와 같이 불교는 45.24%가 설립자나 원장의 관심과 적극성 때문이라고 인적 요소를 강조한 반면 천주교 61.90%, 기독교 43.90%는 유아교육기관이 성당과 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물리적인 요소를 지적함으로써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통계적으

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5> 종교와 연계된 교육활동 비율 및 지속원인 빈도(%)

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χ^2
종교교육비율	10%미만	2(4.88)	21(25.0)	3(4.76)	7(46.67)	30.21 ***
	10-30%	20(48.78)	35(41.67)	34(53.95)	6(40.0)	
	30-50%	5(12.20)	14(16.67)	11(17.46)	2(13.33)	
	50%이상	14(34.15)	14(16.67)	15(23.81)	0(0)	
지속원인	설립자 및 원장	16(39.02)	38(45.24)	20(31.75)	3(20.0)	38.12 ***
	관심					
	종교 기관 내 위치한 때문	18(43.90)	23(27.38)	39(61.90)	7(46.67)	
	교사의 관심	7(17.07)	8(9.52)	2(3.17)	1(6.67)	
	유아의 흥미	0(0)	4(4.76)	1(1.59)	0(0)	
	기타	0(0)	11(13.10)	1(1.59)	4(26.67)	
계		41	84	63	15	

*** $P<.001$

2. 종교별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로서의 직무 만족도

<표6>은 연구문제 중 2, 3, 4 요인을 통계 처리한 결과이다.

종교별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의 직무 만족도는 천주교($M=3.40$)와 기독교($M=3.39$) 교사들의 만족도가 불교교사($M=3.2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M=3.14$)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는데 일원변량 분석에 의한 차이 검증 결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독교, 불교, 천주교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기타종교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기타는 무종교 및 다른 종교를 신앙으로 하는 교사가 포함된다.

3. 종교별 유아교육기관 교사에 따른 종교교육매체 활용정도

<표6>에서와 같이 교사의 종교교육 매체 준비 및 활용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7.00, P<.001$). 교사종교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독교, 불교, 천주교간에는 유의함이 없었으며 이들 세 집단과 기타 교사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교사종교가 유아교육기관의 종교와 일치 할 때 교수활동 준비 및 활용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시사를 주었다.

<표6> 종교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전망

	교사종교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Duncan의 추후검증
종교 교육에 직무 만족도	기독교	41	3.39	0.28	3.74 **	A
	불교	84	3.23	0.44		A
	천주교	63	3.40	0.40		A
	기타(무종교 포함)	15	3.14	0.34		B
교사의 종교 교육 매체 활용도	기독교	41	2.98	0.34	7.00 ***	A
	불교	84	2.68	0.70		A
	천주교	63	2.83	0.56		A
	기타(무종교 포함)	15	2.17	0.54		B
유아기 종교 교육의 효율성 및 전망	기독교	41	3.29	0.41	11.35 ***	A
	불교	84	2.92	0.63		B
	천주교	63	3.15	0.40		A
	기타(무종교 포함)	15	2.51	0.36		C

° ** $P<.01$, *** $P<.001$

° Duncan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다.

4. 종교별 유아교육기관 교사에 따른 유아기 종교교육의 효율성 및 전망

유아기의 종교교육이 필요한 지 또는 효율성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의 응답자료를 통계분석한 결과(<표6>참고), 기독교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M=3.29$), 천주교($M=3.15$), 불교($M=2.92$), 기타($M=2.51$)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 ($F=11.35$, $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집단간에는 어떠한지를 검증한 결과 기독교와 천주교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불교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고, 기타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와 천주교교사들이 불교교사들보다 유아기의 종교교육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기독교 교사들의 열의와 적극적인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서 종교교육이 배제되고 있는 현 교육체제에 종교를 설립 배경으로 창설한 사립유아교육기관들이 설립이념의 준수라는 명분 아래 유아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중시하여, 유아기의 종교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관한 효율성 및 전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203명이며, 질문지를 통해 4개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설립배경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종교와 교사들의 종교는 95%이상에서 일치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종교문제로 인한 갈등은

거의 없다는 해석이 된다. 이 결과는 이석림(1997)의 연구에서 유치원의 종교와 교사의 종교가 85.5%로 일치하였다 라는 보고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게다가 교사들은 소속 유아교육기관이 종교전도나 포교를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설립이념에서 기독교와 천주교간에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났다. 즉 기독교가 종교전도를 강조한데 비해 천주교는 조기 유아교육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 준 것이다. 종교교육 활동 및 반응을 질문한 결과 기독교 75%, 천주교는 72%라는 높은 비율이 교육활동으로 반영되는데 비해 불교의 15%는 '전혀 교육에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대조적인 응답으로 나타나서 불교계의 종교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내 주었다. 종교교육 활동시간 및 횟수에 관해서는 불교와 천주교 교사가 종교명절이나 행사를 이용한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였고 기독교 교사는 일일교육계획안에 삽입하여 종교교육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기독교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종교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 횟수는 모두 주1회 실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필요시에 언제라도 실시한다는 융통성은 있지만 체계적인 면은 부족한 입장도 언급하고 있는데 불교가 44%로 좀 더 높다.

전체 교육활동에서 종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두 10-30%를 선호하고 있으나, 기독교 교사 34%는 50%이상의 종교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종교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원인을 질문한 결과 기독교와 천주교는 유아교육기관이 교회와 성당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으며 불교는 설립자나 원장의 관심이나 열의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나 천주교가 환경 적인 위치라는 물리적 측면을 종교 교육의 큰 이유로 들고 있는 반면 불교는 설립자 즉 스님의 열의를 지적하는 인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둘째,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본다면 천주교와 기독교 교사들의 만족도가 불교나 기타(무종교 및 다른 종교)종교보다 더 높았

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타에 소속한 교사들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계 유아교육기관에서 직무에 거의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불일치한 교사가 어느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종교교육을 지도한다는 것은 불만족의 큰 원인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본다.

셋째, 교사들의 종교와 관련한 교수활동준비나 매체활용에 관해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종교교육을 위한 교수매체준비 및 활용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에 소속한 교사들은 교수매체 준비 및 활용에 소극적이고 열의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번째의 직무 만족도 와도 연관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유아기의 종교교육이 필요한가 그리고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은 교사들의 경험을 통한 견해와 종교교육의 전망을 예견해 준다. 기독교와 천주교 교사들은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주고 있는데, 불교 교사들은 약간의 효율성만을 지적함으로써 불교계의 종교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내주었다.

이는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은 기독교나 천주교계 유아교육기관보다 종교교육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교사의 적극성도 부족하다는 결과(표3 참고)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교사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본다. 이는 마치 기독교의 종교 전도와 불교의 종교포교 현실과도 흡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기타 종교 및 무종교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유아기의 종교교육을 거의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종교교육에 관한 한 교사의 종교와 유아교육기관의 종교가 일치하여야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종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대체로 종교적인 일치로 인하여 종교교육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있는데도 호응적이었다. 그러나 불교계 유아교사들은 기독교나 천주교 교사들보다 다소 종교교육에 소극적이고 열의가 부족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하겠지만 유아교육에서 종교교육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더불어 유아교사들의 연수를 통한 교육활동 및 정보제공의 부족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예측된다.

이상에서의 결론을 중심으로 제언한다면 유아기의 종교교육은 유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바른 삶의 태도,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성 함양, 생명존중의식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시도하려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이념이나 교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유아에게 종파적 교리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그런 교육이기보다는 건전한 성장과 바른 삶에 태도를 형성하는데 더 가치를 두는 인간교육을 지향해 나갈 것을 요구 받는다.

〈참고 문헌〉

- 강인철(1997). 종교문제: 굴복 불안정·갈등으로 점철된 한국 종교. 한완상. 권태한 편.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서울: 민음사.
- 공종원(1989). 내일의 한국사회와 종교. 한국종교 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신명출판사.
- 곽정태(1991). 중등학교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 제 21회 교학연구 발표회 보고서.
- 김명자(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곤(1997). 일본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 한국종교 교육학회.
- 김용표(1997). 미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 한국종교 교육학회.
- 대한교육연합회(1982). 교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서울: 대한교육 연합회.
- 박선영(1978). 존 듀이의 종교교육관, **사대논총 1**.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 박선영(1982). 불교와 교육. **현대 불교신서 45**, 동국대학교 역경원.

- 박선영(1997).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 한국종교교육학회.
- 배영희(1998). 유치원 원장의 지도성에 따른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병순(1999). 전환기 종교지도자 교육의 방향탐색. **종교교육학 연구 8**. 한국종교교육학회.
- 안영혜(1988). 유아교육기관 설립형태에 따른 원장의 지도성 유형과 교사의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인택(1997). 21세기 교회교육의 전망. 21세기 기독교 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기독교 교육학회, 기독교 교육논총 2
- 유정혜(1996).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세원(1997). 태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 한국종교교육학회.
- 윤승용(1997). 현대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 윤주병(1986). 종교 심리학. 서울: 서광사.
- 이명주(1984). 유치원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석립(1997). 종교계 유치원 교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정(1982).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교사의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영(1999). 종교교육에서 제3의 길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8**. 한국종교교육학회.
- 전영배(1990). 외래사상과 민족 문화: 종교, 사상교육. 보문 출판사.
- 황옥자(1994). 불교아동교육론. 불교시대사.
- Abbott, C. F.& Gold, S.(1991). Conferring with parents when You're concerned that their child needs special services. *Young Children*, 46(4).

- Cox Edwin, Carins M Josephine(1989). *Reforming Religious Education*.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 of London.
- Coe, George Albert(1922). *A Social Theory of Religious Educ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 Sons.
- Dewey, John(1940). *Religious and Our Schools, Education Today* New York: G. P. Putnam's sons.
- Fowler, James(1981). *Stage of Faith*. New York: Harper Collins.
- Jorde-Bloom, p.(1988). Teachers need too. *Young Children*, 43(6)
- Murphy, G(1956). Social Motivatio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G. Lindzey Cambridge: Addison Wesley.
- Sealey, John(1985).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Westerhoff III, John(1976).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 New York : Seabury Press.